

■ 괴운(槐雲) 칼럼



설화(舌禍)와 필화(筆禍)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북아공파 36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설화(舌禍)와 필화(筆禍) 사건을 알고 있다. 설화(舌禍)란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말실수로 세치의 혀(舌)가 부른 치명적인 화(禍: unfortunate slip of tongue))를 말하며, 필화(筆禍)는 발표한 글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制裁)를 받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지도자들의 가벼운 언행은 역사의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음으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생각 한 뒤에 입을 열어야 함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언어편(言語篇)에 중국 전한(前漢)시대 성상학자(星相學者) 엄준(嚴遵), 자(字) 군평(君平)이 말하기를 “입과 혀는 화(禍)와 근심의 근본이요,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와 같이니 입을 막고 혀를 감추면 몸은 어느 곳에서나 편안할 것이다(口是傷人斧 言是割舌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교경전 법구경(法句經: dhamma pada)에도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의 집을 태워버리듯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의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

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라고 했다. 또한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불안정하니 여색(女色)을 경계하고, 청, 장년기에는 혈기가 왕성하니 다름을 경계할 것이며, 노년기에는 이미 혈기가 쇠잔했으니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은 뛰어난 지략(智略)으로 조선왕조의 창업을 이루었으나 포용력 없는 성격으로 ‘제 1차 왕자의 난’ 때에 내뿜은 말실수로 이방원에게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당했다. 세조 때 18세에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27세에 병조판서가 되었던 기린아(麒麟兒) 남이(南怡)장군도 조심성 없는 언행(言 行)으로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예종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북정가(北征歌)를 썼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白頭山石磨刀盡), 두만강 물은 먹어 없어졌네(豆滿江水飲馬無),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男兒二十未平國),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이르리오(後世誰稱大丈夫).” 그런데 남이의 반대파인 유자광(柳子光)은 이 시(詩)에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未平國)”이라는 부분을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未得國)”으로 고의로 고쳐서 상부에 거짓 밀고함으로써 남이는 역적(逆賊)으로 모함을 받아 죽음을 당한 필화(筆禍)사건이다.

특히 조선 중기에는 봉당정치가 전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영조 때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신임사화는 노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자 당시 집권세력이 나경언(羅景彦)의 교변사건(告變事件)을 통해 ‘사도세자의 10가지 비행’을 폭로함으로써 사도세자도 결국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필화사건은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 많았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검열과 탄압으로 창작의 욕구에 재갈이 물렸다가 자유롭게 글을 쓰게 된 문인들이 많았다. 1946년 시인 유진오(兪鎭五)사건과 1947년 북한지역에서 구상(具常), 강홍운(康鴻運) 등 여러 시인들의 합동시집인 응향(凝香)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1960년 이영희(李泳禧) 필화사건, 1964년 11월 문화방송 황용주(黃龍珠)사장이 국시(國是)위반의 ‘통일론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65년 남정현(南廷賢)이 6.25전쟁 이후 남한의 부패상과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한 소설 분지(分地)가 북한매체에 연재하자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970년 김지하도 재벌, 국해(國害)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5적(五賊)으로 풍자한 당시(譚詩)를 사상계에 발표하여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고, 1975년 양성우(梁成祐)교사도 유신체제 비판한 ‘겨울 공화국’을 발표하여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설화(舌禍)나 필화사건은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 글 한 줄에 정치생명을 잃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

성경 주석의 설교방식인 ‘미드라시(midrash)’에도 “함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걸 말하는 사람, 함담의 대상,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인간 생활에서 깊이 새겨줄 내용이다. 특히 지도자가 되려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의 농담이나 함담에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기해년 세모(歲暮)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동권문은 설화와 필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중심과 활동**



**권 희 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1. 마음의 중심(中心)

중심(中心,center)은 통상 ‘가운데’이고 핵심으로, 위치의 기준이 되거나 활동의 본질이다. 또한 사람이 지닌 쉽게 변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기도 하다.

중심을 가진 굳건한 마음은 균형감을 갖게 해서 자기 자신이 자만하거나 반대로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상대를 폄하하거나 아부하지 않는다. 또한 안정감을 갖게 해서 자신을 비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데 답대하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도 견고한 믿음, 확실한 가치, 또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능히 피해를 최소화하며 헤쳐 나갈 수 있다. 요즈음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들이다.

중심이 있으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보고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다. ‘어떤 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합은 전체 모습 이상이다’라는 전제로 요소와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른바 전체적인 형태나 모습의 독일어인 게슈탈트(형태주의)이름의

2. 몸의 중심(重心)

중심(重心,centroid)은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점이다.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이며 질량의 중심이다.

이 무게중심은 물체를 구성 하는 각 부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점이기도 하다. 물체의 균형점을 뒤흔친 축 위에 올려놓거나, 이 지점에 실을 매달아 들어 올려도 좌나 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점이다.

이 무게중심은 물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도 유용하다. 물체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 되고,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불안정해진다.

무게중심의 균형감을 요구하는 스키나 스케이트보드는 물론 안정감을 요하는 씨름레슬링, 유도등 경우는 인체의 중심을 담고 있는 골반 부위의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로 효율성을 피하고 있다.

무게가 있는 인체는 중력의 영향아래에 있다. 중력은 지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무게중심이 중력수직선에 일치할수록 안정적이다. 인체의 중심(重心)인 골반을 지면에 대하여 바로세우고, 이어 골반위에 있는 척추 뼈

**이달의 시**

**동네 놀이터**

/ 권순갑

아파트 숲길 자전거도로  
따릉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소공원 미끄럼틀 오르내리락  
악동들 본 지도 오래고  
민들레가 피고 나팔꽃이 피어도  
동네 꼬마는 없다

줄라줄라람 가끔 예쁜 견공들이  
악동을 대신할 뿐, 다들 어디 갔을까

와짜찌겔 하든,동네 어귀는

나만의 추억이었나

돌아와다오  
이 악동들이  
동네 한 바퀴 아니  
반 바퀴라도 같이 돌아

 **이달의 책**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야기**

권무일



어머니와 영 이별한 지 52년, 아버지가 세상을 버린 지 45년, 그런데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그 동안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마음을 쏟은 나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잊고 살았는지 모른다. 10여 년 전, 나는 아는 이 없고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훌쩍 떠

나왔다. 그리고 7년간은 아내도 자식들 곁에 남겨둔 채 나 혼자 보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교차하면서 나의 마음은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50여 년이 흐른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절절했다. 나는 하염없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고 한없이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 자식들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하신 어머니,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어머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 꿈을 가진 내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자손들이 있는 것이다.

2015년 5월 제주도 구엄 무극재(無極齋)에서

# 權紀 1100년의 역사 재조명 사업

대중회에서는 권기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 3정승 6판서, 청백리 등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현조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천년사’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파종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편집회의 : (1차)2019년 6월 24일 11시, 장소 : 대중회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3월(9개월)

○ 사업담당 : 편집국장 권행완

○ 작성예시

권기	단기	서기	문중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호/성명	파	관직명	주요 사건 및 공적			
1		930	권행權幸	시조 태사공	삼한벽상삼중대왕 아보공신	안동권씨 득성(得姓)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산11번지	서경에 학교창설	
6		935						신라향복(명망)	
7		936						고려통일,후백제멸망	
21		950						광종 과거제도 실시	요나라 건국
29		958						백관의 공복 제정	송나라 건국
31		960							폴란드왕국 건국
33		962							신성로마제국 성립

※ 표기시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병기 가능합니다. 각 파종회에서는 문중사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